

2022년 노무사 기출문제(경제학)해설

월비스 김영식교수 제공

101.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두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X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X재와 대체 관계에 있는 Y재의 (ㄱ)곡선은 (ㄴ)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Y재의 균형가격은 (ㄷ)한다.

- ① ㄱ: 수요, ㄴ: 우측, ㄷ: 상승 ② ㄱ: 수요, ㄴ: 좌측, ㄷ: 상승
 ③ ㄱ: 수요, ㄴ: 좌측, ㄷ: 하락 ④ ㄱ: 공급, ㄴ: 우측, ㄷ: 상승
 ⑤ ㄱ: 공급, ㄴ: 좌측, ㄷ: 하락

정답 ①

(풀이)

(참고)에서 (2) 연관상품의 가격

X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X재와 대체 관계에 있는 Y재의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Y재의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참고)

■ 수요변화의 요인(要因)

(1) 소득수준의 변화

재화종류	소득증가 시 수요 변화	예
① 정상재(보통재, 상급재)	·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소고기, 양주
② 열등재(하급재)	·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돼지고기, 소주

(2) 연관상품의 가격

재화종류	재화의 특징	예
① 대체재 (substitute goods)	· 용도가 비슷하여 대신 소비해도 만족의 차이가 별로 없는 재화. 한 재화(커피)의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대신 대체재(홍차)의 수요가 증가하여 대체재의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 연관상품의 가격과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변화	사이다와 콜라, 커피와 홍차, 버터와 마아가린,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② 보완재 (complementary goods)	· 따로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 한 재화(커피)의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의 수요량은 감소하므로 보완재(프림)의 수요가 감소하여 보완재의 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 연관상품의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수요가 변화	커피와 설탕, 커피와 프림, 카메라와 필름 등

102. 다음 생산함수에서 규모에 대한 수확이 체증, 불변, 체감의 순으로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 | | |
|--------------------------------|--|
| ㉠. $q = 2L + 3K$ | ㉡. $q = (2L + K)^{\frac{1}{2}}$ |
| ㉢. $q = 2LK$ | ㉣. $q = L^{\frac{1}{3}} K^{\frac{2}{3}}$ |
| ㉤. $q = 3L^{\frac{1}{2}} + 3K$ |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정답 ③

(풀이) 동차생산함수와 규모에 대한 수익에 의해

㉠. $q = 2L + 3K \Rightarrow$ 1차 동차함수: 규모에 대한 수확 불변

㉡. $q = (2L + K)^{\frac{1}{2}} \Rightarrow$ 1차 이하 동차함수: 규모에 대한 수확 감소

㉢. $q = 2LK \Rightarrow$ 2차 동차함수: 규모에 대한 수확 체증

㉣. $q = L^{\frac{1}{3}} K^{\frac{2}{3}} \Rightarrow$ 1차 동차함수: 규모에 대한 수확 불변

㉤. $q = 3L^{\frac{1}{2}} + 3K \Rightarrow$ 1차 이하 비동차함수: 규모에 대한 수확 감소

(참고) 동차함수의 정의

(1) 동차함수(homogeneous production function)의 정의

어떤 함수 $f(x, y)$ 의 독립변수 x, y 에 각각 k 배 한 값인 $f(kx, ky)$ 이 함수 $f(x, y)$ 의 k^r 배이면
즉, $f(kx, ky) = k^r f(x, y)$ 이 성립하면 함수 $f(x, y)$ 를 r 차 동차함수라 한다.

(2) 동차생산함수와 규모에 대한 수익

함수를 생산함수 $Q = F(L, K)$ 라 하면 동차함수정의를 의해

$$F(hL, hK) = k^r F(L, K)$$

- ① $r = 1$ (1차 동차)이면 생산량이 k 배 증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CRS)
- ② $r > 1$ 이면 생산량이 k 배보다 많이 증가: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IRS)
- ③ $r < 1$ 이면 생산량이 k 배보다 적게 증가: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DRS)

❖ 동차함수의 예시

1) 함수 $f(x, y) = 2x + y$

$f(kx, ky) = 2kx + ky = k(2x + y) = kf(x, y)$ 이 성립하여 $r = 1$ 인 경우이다.

그러므로 1차 동차함수이다. 즉, 선형생산함수는 1차 동차함수

2) 함수 $f(x, y) = \min(x, y)$

$f(kx, ky) = \min(kx, ky) = k \min(x, y) = kf(x, y)$ 이 성립하여 $r = 1$ 인 경우이다.

그러므로 1차 동차함수이다. 즉, 레온티에프생산함수도 1차 동차함수

3) 함수 $f(x, y) = xy$

$f(kx, ky) = kxky = k^2xy = k^2f(x, y)$ 이 성립하므로 2차 동차함수이다.

■ Cobb-Douglas생산함수

$$Q = AL^{\alpha}K^{\beta} \quad (A > 0)$$

(1) Cobb-Douglas생산함수와 규모에 대한 수익

생산함수 $Q = F(L, K) = AL^{\alpha}K^{\beta}$ 라 하면 동차생산함수의 정의에 의해 항상 $\alpha + \beta$ 차 동차생산함수가 되므로

- ① $\alpha + \beta = 1$ (1차 동차)이면 :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CRS)
- ② $\alpha + \beta > 1$ 이면 :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IRS)
- ③ $\alpha + \beta < 1$ 이면 :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DRS)

103. 독점기업의 가격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비자잉여를 유지하며 생산자의 이윤을 극대화한다.
- ② 독점가격은 한계비용과 같다.
- ③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단일 가격을 설정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 후생은 증가한다.
- ④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높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 ⑤ 이부가격제는 소비자들의 수요 행태가 다양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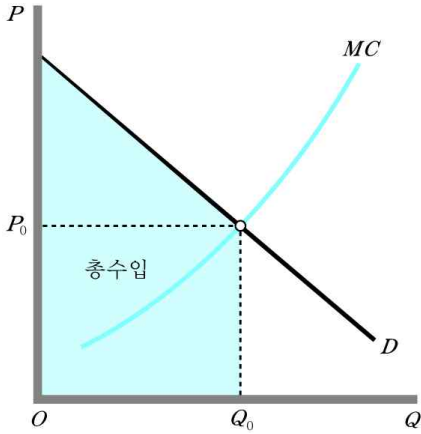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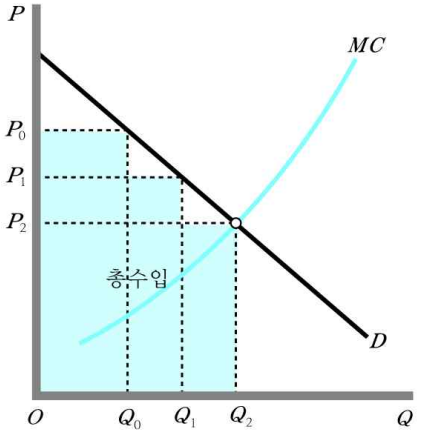
정답 ③

(풀이)

- ① (X) 소비자잉여를 (완전경쟁과 같이) 유지하며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의 이윤은 감소한다.
- ② (X) 독점가격은 $P > MR = MC$ 이므로 한계비용보다 크다.
- ③ (O)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단일 가격을 설정하는 것에 비해 가격의 차별로 생산량이 증가하므로 사회적 후생은 증가한다.
- ④ (X)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높은 소비자들에게 더 낮은 가격을 부과한다.
- ⑤ (X) 2급가격차별은 소비자들의 수요 행태가 다양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참고)

- 1급 가격차별[first-degree price discrimination]과 2급 가격차별

1급 가격차별 (완전가격 차별)	2급 가격차별 (second-degree price discrimination)
<p>➡ 1급 가격차별이란 각 단위의 재화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을 설정하는 것으로 모든 재화의 가격이 서로 다르다.</p> <p>①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이 일치하므로 완전경쟁과 같은 생산량을 생산한다.</p> <p>② 가격차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생산량이 증가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증가한다.</p> <p>③ 소비자잉여가 모두 독점기업으로 귀속된다.</p> <p>▶ 현실적인 예가 거의 없다.(기부금 입학제)</p>	<p>➡ 2급 가격차별이란 재화의 구입량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짜장면 곱빼기)</p> <p>① 가격차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생산량이 증가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증가한다.</p> <p>② 소비자잉여의 많은 부분이 독점기업으로 귀속 된다.</p> <p>③ 정보의 비대칭이 요인</p> <p>▶ 사용량에 따라 달리하는 요금제</p>
	

104. 경쟁시장에서 A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는 $C(q) = 50 + 10q + 2q^2$ 이고, 한계비용함수는 $MC(q) = 10 + 4q$ 이다. 시장가격이 $P = 30$ 일 때, A기업의 생산량(q)과 생산자잉여(PS)는?

- ① $q = 4, PS = 0$ ② $q = 4, PS = 5$ ③ $q = 5, PS = 0$
 ④ $q = 5, PS = 50$ ⑤ $q = 15, PS = 50$

정답 ④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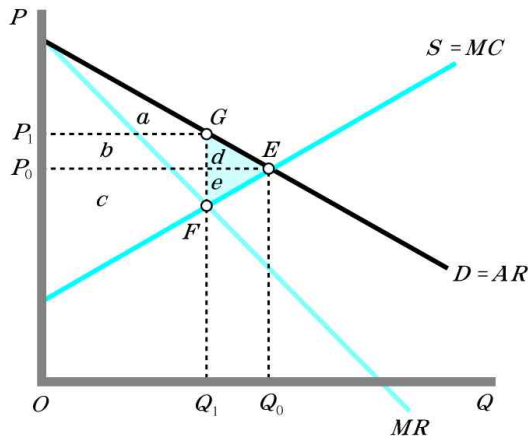
(완전)경쟁시장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P = MR = MC$ 이므로

$$MC(q) = 10 + 4q = 30 \Rightarrow q = 5$$

(참고) 그림에서 c+d의 면적이 생산자잉여이므로 높이가 $(30-10)$ 20이고 밑변의 길이가 5인 삼각형의 면적이므로 $PS = 50$ 이다.

(참고)

■ 완전경쟁과 독점의 비교



❶ 가격과 생산량

독점은 완전경쟁의 E 점(P_0, Q_0)보다 가격은 상승(P_1)하고 생산량은 감소(Q_1)한 F 점에서 균형을 이루어 G 점의 가격을 받는다.

❷ 자원배분의 효율성

독점기업은 $P > MC$ 이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다.

❸ 사회적 후생손실

사회적 후생손실은 $\triangle(d+e)$ 이다.

105. 동일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두 기업 A와 B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은 두 기업이 전략을 동시에 선택할 경우 얻게 되는 보수행렬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전략을 동시에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본 게임은 1회만 행해진다. 괄호 안의 왼쪽 값은 A의 보수, 오른쪽 값은 B의 보수를 나타낸다.)

		B	
		광고함	광고 안함
A	광고함	(6, 4)	(8, 3)
	광고 안함	(3, 8)	(10, 4)

- ① 내쉬균형의 보수조합은 (6, 4)이다.
- ② A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 ③ B의 우월전략은 광고 안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 ④ A와 B가 각각 우월전략을 선택할 때 내쉬균형에 도달한다.
- ⑤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이다.

정답 ①

(풀이)

기업 A가 광고함의 보수는 6또는 8이고 광고 안함의 보수는 3또는 10이므로 우월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 B가 광고함의 보수는 4또는 8이고 광고 안함의 보수는 3또는 4이므로 우월전략은 광고함이다. 따라서 내쉬균형은 기업 B가 광고함일 때 기업 A는 광고함의 보수가 6으로 더 크므로 내쉬균형의 보수조합은 (6, 4)이다.

106. 정부는 물가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X재에 부과하는 물품세를 단위당 100원만큼 인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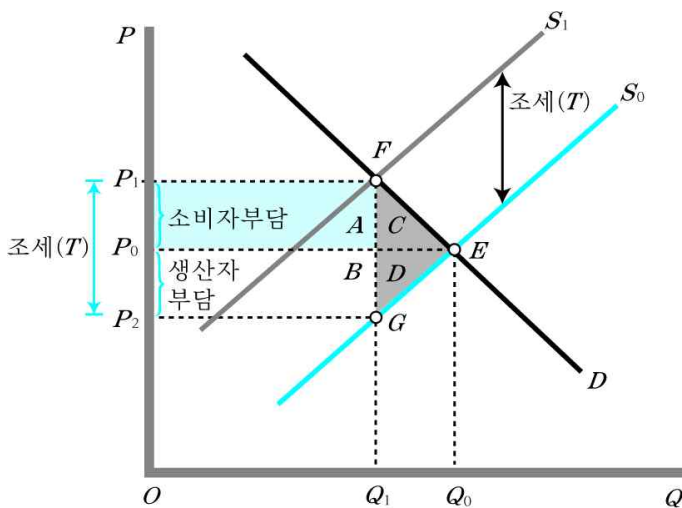
- ① 소비자의 부담은 100원만큼 줄어든다.
- ② 조세 인하 혜택의 일정 부분은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 ③ 조세 인하로 인해 X재 가격은 하락하지만, 소비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④ 조세 인하로 인해 후생손실이 늘어난다.
- ⑤ X재에 부과되는 물품세는 중립세여서 경제주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 ②

(풀이) (참고) 조세부과 효과와 효과가 반대로 발생하므로

- ① (X) 소비자의 부담과 생산자 부담의 합이 100원만큼 줄어든다.
- ② (O) 조세부과의 귀착과 마찬가지로 조세 인하 혜택의 일정 부분은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 ③ (X) 조세 인하로 인해 X재 가격은 하락하지만, 소비량은 증가한다.
- ④ (X) 조세 인하로 인해 후생손실이 감소한다.
- ⑤ (X) X재에 부과되는 물품세는 경제주체들에게 조세부과와 반대의 영향을 준다.

(참고) 조세부과 효과



- ① 최초의 균형점 E점에서
가격= P_0 , 균형량= Q_0
- ② T만큼의 조세를 부과
→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T만큼 평행이동:
 $S_0 \rightarrow S_1$
→ 새로운 균형점 F점에서
가격= P_1 , 균형량= Q_1
- ③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 가격(P_1) - 조세(T) = P_2
- ④ 소비자부담 : $P_1 - P_0$
생산자부담 : $P_0 - P_2$
- ⑤ 총조세액 : $\square(A+B)$
- ⑥ 사회적 후생손실 발생 $\Delta(C+D)$

107.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X재에 탄소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ㄱ. 탄소세는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이다.
- ㄴ. 탄소세를 부과하면 X재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 ㄷ. 탄소세를 부과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 ㄹ. X재의 주요사례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들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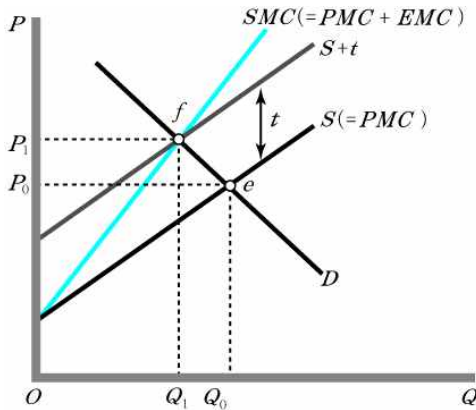
정답 ④

(풀이)

- ㄱ. (O) **(참고)** 탄소세는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이다.
ㄴ. (O) **(참고)** 탄소세를 부과하면 X재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ㄷ. (O) **(참고)** 탄소세를 부과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참고)

■ 조세부과(피구세) 효과



☞ 조세부과(피구세=탄소세)

- 생산에 외부비경제가 발생
- 바람직한 산출량(Q_1)수준에서
- 조세(t)= $SMC - PMC$ 만큼 부과
- 사적한계비용(PMC)곡선이 상방으로 이동
- 생산량과 가격이 바람직한 수준

108.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접근할수록 지니계수는 커진다.
②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작을수록 분배상태가 더 평등한 것으로 본다.
③ 로렌츠곡선은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비율을 각각 축으로 하여 계층별 소득분포를 표시한 곡선을 말한다.
④ 십분위분배율이란 최하위 40 %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더욱 평등한 분배상태를 의미한다.

정답 ①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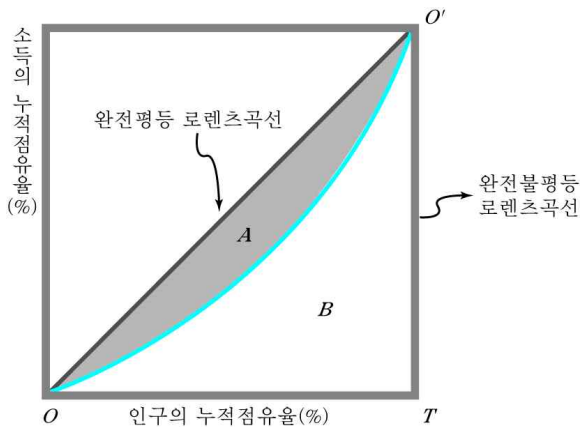
- ① (X)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접근할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해지므로 지니계수는 작아진다.
② (O) **(참고)**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작을수록 분배상태가 더 평등한 것으로 본다.
③ (O) **(참고)** 로렌츠곡선은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비율을 각각 축으로 하여 계층별 소득분포를 표시한 곡선을 말한다.
④ (O) **(참고)** 십분위분배율이란 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⑤ (O) **(참고)** 십분위분배율은 0과 2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더욱 평등한 분배상태를 의미한다.

(참고)

■ 계층별 소득분배측정치가 취하는 값의 범위

용 어	범 위	완전 균등 수치	완전 불균등 수치
10분위 분배율	$0 \leq 10\text{분위 분배율} \leq 2$	2	0
5분위 소득배율	$1 \leq 5\text{분위 배율} \leq \infty$	1	∞
지니계수	$0 \leq \text{지니계수} \leq 1$	0	1
애킨슨지수	$0 \leq \text{애킨슨지수} \leq 1$	0	1
로렌츠곡선		대각선	」형

■ 로렌츠 곡선



- ① 직선 OO': 완전평등
- ② 곡선 OO': 면적 A가 클수록 불평등
- ③ 직선 OTO': 완전 불평등

■ 지니계수

(1) 지니계수의 정의

지니계수란 로렌츠곡선에서 나타난 소득분배상태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아래 공식의 면적은 로렌츠 곡선에서의 면적을 나타낸다.

$$\text{지니계수} = \frac{A \text{의 면적}}{\triangle OTO' \text{의 면적}} = \frac{A}{A+B}$$

(2) 균등정도의 판단

지니계수가 취하는 값의 범위는 $0 \leq \text{지니계수} \leq 1$ 으로 그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며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면 지니계수의 값은 0이다.

■ 10분위 분배율의 정의

10분위 분배율이란 계층별 소득분포 자료에서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이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10\text{분위 분배율} = \frac{\text{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text{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109. 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들이 안전을 우려하여 공동으로 아파트입구에 CCTV를 설

치하고자 한다. 설치된 CCTV의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공유자원이다.
 ㄴ.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사적재이다.
 ㄷ.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비배제성을 갖는다.
 ㄹ.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공공재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⑤

(풀이)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성질의 재화이므로 공공재이다.

(참고)

■ 공공재의 구분

구분		배제성	
		성립 : 유료	불성립(비배제성) : 무료
경합성	성립	(사용재[민간재]) 아이스크림, 라면 막히는 유료도로	(비순수공공재[공유자원]) 무료낚시터, 소방서비스 공동소유 목초지 막히는 무료도로
	불성립 (비경합성)	(비순수공공재) 유료공원 케이블 TV 안 막히는 유료도로	(순수공공재) 국방, 치안 공중파방송 안 막히는 무료도로

110.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촌지역의 물가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
 ②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정부 물가관리의 주요 대상지표가 된다.
 ③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상품의 가격동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④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국내총생산을 실질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다.
 ⑤ 우리나라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 간에 거래되는 일정 비율 이상의 비중을 갖는 원자재 및 자본재의 가격 변화를 반영한다.

정답 ②

(풀이)

- ① (O)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매하는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므로 농촌지역의 물가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
 ② (X)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 중 일정 가중치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③ (O) (참고)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상품의 가격

동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④ (O)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국내총생산을 실질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다.

⑤ (O) (참고) 우리나라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 간에 거래되는 일정 비율 이상의 비중을 갖는 원자재 및 자본재의 가격 변화를 반영한다.

(참고)

■ 물가지수의 종류

구분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비자물가지수(CPI)	GDP디플레이터
작성방식	라스파이레스 방식		파세 방식
재화종류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소비재	모든 재화와 서비스
지수성격	일반적인 물가수준 변동 측정 → 일반목적지수	소비자 구매력 측정 → 특수목적지수	포괄적인 물가지수
작성기관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품목 수 (2012년)	923여개 품목	481여개 품목	GDP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산출
작성품목	국내시장에서 기업상호 간에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물가지수	일반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매하는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	GDP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므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포함되어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의 의미가 있다.
추계범위	수입품이나 주택가격과 임대료 모두 제외	수입품가격과 주택임대료는 포함되나 주택가격은 제외	주택임대료 신규주택가격은 포함되나 수입품가격과 기존주택가격은 제외

111. A국과 B국이 자동차 1대와 옷 1벌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의 양이 아래 표와 같다고 한다. 리카도의 비교 우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 분	A국	B국
자동차	10	6
옷	5	2

① A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② B국은 옷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③ B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2벌이다.

④ B국은 옷 생산에 있어 A국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다.

⑤ A국은 자동차 생산에 특화하고, B국은 옷 생산에 특화하여 교역을 하는 것이 상호이익이다.

정답 ③

(풀이)

자동차를 X재, 옷을 Y재라하고

자동차(X재) 생산의 기회비용을 옷(Y재)로 나타내면,

$$\left(\frac{P_X}{P_Y}\right)^A = \frac{10}{5} = 2 \text{이고} \quad \left(\frac{P_X}{P_Y}\right)^B = \frac{6}{2} = 3 \text{이므로}$$

A국이 자동차(X재)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작으므로 자동차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③ (X) B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3벌이다.

112. 2020년의 명목GDP는 2,000조원, 2021년의 명목GDP는 2,200조원이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DP 디플레이터는 2021년에 105였다. 2021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약 얼마인가?

- ① 1.2 % ② 2.4 % ③ 4.8 % ④ 9.6 % ⑤ 14.4 %

정답 ③

(풀이)

기준년도는 GDP 디플레이터=100 → 명목 GDP = 실질 GDP이므로

	2020년(기준년도)	2021년	증가율
명목 GDP	2,000조	2,200조	
실질 GDP	(2,000조)	()	
GDP 디플레이터	(100)	105	

$$\text{한편, 2021년 실질 GDP} = \frac{\text{명목 GDP}}{\text{GDP 디플레이터}} \times 100 = \frac{2,200}{105} \times 100 \approx 2,095$$

따라서 2,000조에서 2,095만큼 증가하였으므로

$$\text{2021년의 실질경제성장률} = \frac{2,095 - 2,000}{2,000} \times 100(\%) \approx 4.8(\%)$$

(참고)

■ 명목 GDP 와 실질 GDP

(1) 명목 GDP

$$\text{명목 GDP} = \sum P_t \times Q_t \quad (P_t: \text{당해 연도 가격}, Q_t: \text{당해 연도 생산량})$$

(2) 실질 GDP

$$\text{실질 GDP} = \sum P_0 \times Q_t \quad (P_0: \text{기준년도 가격}, Q_t: \text{당해 연도 생산량})$$

(3) GDP 디플레이터

$$\text{GDP 디플레이터} = \frac{\text{명목 GDP}}{\text{실질 GDP}} \times 100$$

① 파세방식(비교년도 수량을 가중치로 사용)의 물가지수이다.

② GDP 디플레이터=100 → 명목 GDP = 실질 GDP 이거나 기준년도를 의미한다.

113. 장기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이민자의 증가로 노동인구 증가 ② 물적 및 인적 자본의 증대
 ③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증대 ④ 새로운 광물자원의 발견
 ⑤ 자연실업률의 상승

정답 ⑤

(풀이)

- ① (O) 이민자의 증가로 노동인구 증가 → 노동공급이 증가 → AS곡선이 우측 이동
- ② (O) 물적 및 인적 자본의 증대 → 생산함수가 상방으로 이동 → AS곡선이 우측 이동
- ③ (O)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증대 → 생산함수가 상방으로 이동 → AS곡선이 우측 이동
- ④ (O) 새로운 광물자원의 발견 → 생산함수가 상방으로 이동 → AS곡선이 우측 이동
- ⑤ (X) 자연실업률의 상승 → 노동공급이 감소 → AS곡선이 좌측 이동

(참고)

■ 총공급곡선의 이동

(1) 노동공급증가의 영향

인구증가, 노동의욕 상승, 근로소득세가 인하 → 노동공급이 증가 → 노동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 동일 물가수준에서 생산증가 → AS곡선이 우측 이동

(2) 노동수요증가의 영향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이 하락, 법인세 인하 등 → 노동수요 증가 → 노동수요곡선 우측으로 이동
→ 동일 물가수준에서 생산증가 → AS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3) 생산함수의 이동영향

기술진보나 자본이 증가 → 생산함수가 상방으로 이동 → 노동수요 곡선 우측으로 이동
→ 동일 물가수준에서 생산증가 → AS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4) 예상물가의 영향

예상물가수준이 상승하면 → AS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114. 인플레이션 비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메뉴비용
- ② 누진소득세제하의 조세부담 증가
- ③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
- ④ 자산 가치 평가 기준의 안정화
- ⑤ 구두창비용

정답 ④

(풀이)

- ④ (X) 자산 가치 평가 기준의 불안정화

(참고)

■ 인플레이션의 영향

(1)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pi_t > \pi_t^e$)

1) 부와 소득의 재분배

실제실질이자율이 감소하므로 채권자는 불리하고 채무자는 유리하다.

2) 조세부담증가 : 각종제도(조세)가 변하지 않는 경우

중간변수	통화공급 증가요인
본원통화 증가	▸ 재할인을 하락에 의한 예금은행 대출 증가
	▸ 고객예금감소나 고객 대출증가로 인한 예금은행 대출 증가
	▸ 중앙은행의 채권(통화안정증권, RP)매입
	▸ 정부의 대출 증가
통화승수 상승	▸ 국제수지 흑자(내생성을 가정)
	▸ 민간이나 예금은행의 현금보유감소 → 예금통화비율(현금통화비율)하락
	▸ 기준을 하락
	▸ 이자율 상승(내생성을 가정) → 현금통화비율 또는 초과기준을 하락

116. 국민소득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총생산은 국내총생산과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의 합계이다.
- ② 명목국내총생산은 생산량의 변화와 함께 가격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 ③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용도의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총합이다.
- ④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총합이다.
- ⑤ 투자는 민간투자와 정부투자의 합계이며, 재고변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⑤

(풀이)

- ① (O) (참고) 국민총생산은 국내총생산과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의 합계이다.
- ② (O) 명목 $GDP = \sum P_t \times Q_t$ (P_t : 당해 연도 가격, Q_t : 당해 연도 생산량)이므로 생산량의 변화와 함께 가격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 ③ (O) (참고)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용도의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총합이다.
- ④ (O)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총합이다.
- ⑤ (X) 투자는 민간투자와 정부투자의 합계이며, 재고변동도 포함된다.

(참고)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생산(GNP), 국내총소득(GDI), 국민총소득 (GNI)와의 관계



117. 다음은 A국의 경제를 나타낸다. 완전고용의 GDP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지출은?

(단, Y는 GDP, C는 민간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Y_f 는 완전고용하에서 GDP이다.)

- | | |
|---------------------------------------|--|
| <input type="radio"/> $Y = C + I + G$ | <input type="radio"/> $C = 100 + 0.5(Y - T)$ |
| <input type="radio"/> $I = 300$ | <input type="radio"/> $G = 100$ |
| <input type="radio"/> $T = 100$ | <input type="radio"/> $Y_f = 1,200$ |

- ① 100 ② 150 ③ 300 ④ 350 ⑤ 400

정답 ②

(풀이)

균형조건: $Y^D = Y$

유효수요: $Y^D = C + I^D + G + (X - M)$ 이므로

$$Y = C + I^D + G = 100 + 0.5(Y - 100) + 300 + 100 = 0.5Y + 450$$

$$\Rightarrow 0.5Y = 450 \Rightarrow \therefore Y_E = 900$$

$$GDP \text{ 갭} = \text{완전고용국민소득}(Y_f) - \text{실제(균형)국민소득}(Y_E) = 1,200 - 900 = 300$$

$$\text{한편 정부지출승수는 } \frac{dY_E}{dG} = \frac{1}{1-c} = \frac{1}{1-0.5} = 2$$

완전고용의 GDP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지출은 디플레이션갭(ΔG)이다.

따라서 디플레이션갭(ΔG) \times 정부지출승수 = GDP갭(ΔY_E)에 적용하면

$$\text{디플레이션갭}(\Delta G) \times 2 = 300 \quad \therefore \text{디플레이션갭}(\Delta G) = \frac{300}{2} = 150$$

(참고)

■ 주요 기본승수 (투자승수와 정부지출승수는 항상 같다)

$$1) \text{ 투자승수: } \frac{dY_E}{dI_0} = \frac{1}{1-c} = \frac{1}{s} \quad (\because s = 1 - c)$$

$$2) \text{ 정부지출승수: } \frac{dY_E}{dG} = \frac{1}{1-c}$$

$$3) \text{ 조세승수: } \frac{dY_E}{dT} = \frac{-c}{1-c}$$

■ GDP갭과 디플레이션갭과의 관계

$$\text{디플레이션갭}(\Delta G) \times \text{정부지출승수} = GDP\text{갭}(\Delta Y_E)$$

118. 1년간 정기예금의 실질이자율이 5%, 인플레이션율이 3%이고, 이자소득세율이 20%일 때 세후 명목 이자율은?

- ① 1.6% ② 4.8% ③ 5.0% ④ 6.4% ⑤ 8.0%

정답 ④

(풀이)

주어진 조건을 명목이자율(R_t) = 실질이자율(r_t) + 인플레이션율(π_t^e)에 적용하면

$$\text{명목이자율}(R_t) = 5\% + 3\% = 8\%$$

$$\text{명목세율은 } 8\% \times 20\% = 1.6\%$$

$$\text{세후 명목이자율은 명목이자율}(R_t) - \text{명목세율} = 8\% - 1.6\% = 6.4\%$$

(참고)

■ 피셔의 방정식[Fisher's equation]

1) 명목이자율은 이번 기 실질이자율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더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text{명목이자율}(R_t) = \text{실질이자율}(r_t) + \text{기대 인플레이션율}(\pi_t^e)$$

2) 위의 식은 실제실질이자율(사후적 실질이자율)을 구하는 식으로도 이용한다.

$$\text{실제실질이자율}(r_t) = \text{명목이자율}(R_t) - \text{실제 인플레이션율}(\pi_t)$$

119. 다음 표는 A국의 노동시장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4,000명으로 일정할 때 2020년 대비 2021년의 노동시장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년	2021년
취업자 수	1,100명	1,000명
비경제활동인구	2,000명	2,100명

- ①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② 실업률 증가 ③ 고용률 감소
④ 실업자 수 변화 없음 ⑤ 취업률 변화없음

정답 ⑤

(풀이)

	2020년	2021년	비고
취업자 수	1,100명	1,000명	
비경제활동인구	2,000명	2,100명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비경제활동인구	2,000명	1,900명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취업자 수	900명	900명	④ (O) 불변
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frac{2,000}{4,000} \times 100$	$\frac{1,900}{4,000} \times 100$	① (O) 감소
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frac{900}{2,000} \times 100$	$\frac{900}{1,900} \times 100$	② (O) 증가
고용률 = $\frac{\text{취업자수}}{\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frac{1,100}{4,000} \times 100$	$\frac{1,000}{4,000} \times 100$	③ (O) 감소
취업률 = $\frac{\text{취업자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frac{1,100}{2,000} \times 100$	$\frac{1,000}{1,900} \times 100$	⑤ (X) 증가

(참고)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5세 이상의 인구(A)		
비경제활동인구(C) (주부, 학생, 환자, 군복무자, 실망노동자 등)	경제활동인구(B)	
	취업자(D)	실업자(E)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이상의인구}} \times 100 = \frac{B}{A} \times 100 = \frac{B}{B+C} \times 100(\%)$$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수}}{\text{15세이상의인구}} \times 100(\%)$$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E)}{\text{경제활동인구}(B)} \times 100 = \frac{\text{실업자수}(E)}{\text{취업자수}(D) + \text{실업자수}(E)} \times 100$$

120.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A기업의 생산함수는 $Q = -4L^2 + 100L$ 이고 생산물가격은 50이다. 임금이 1,000에서 3,000으로 상승할 때 노동수요량의 변화는? (단, Q는 산출량, L은 노동시간이다.)

- ① 변화없음 ② 5 감소 ③ 5 증가 ④ 10 감소 ⑤ 10 증가

정답 ②

(풀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이윤극대화조건은

$$\text{요소가격}(w) = VMP_L = (MP_L \times P)$$

$$MP_L = \frac{dQ}{dL} = -8L + 100$$

$$VMP_L = (MP_L \times P) = 50(-8L + 100) \text{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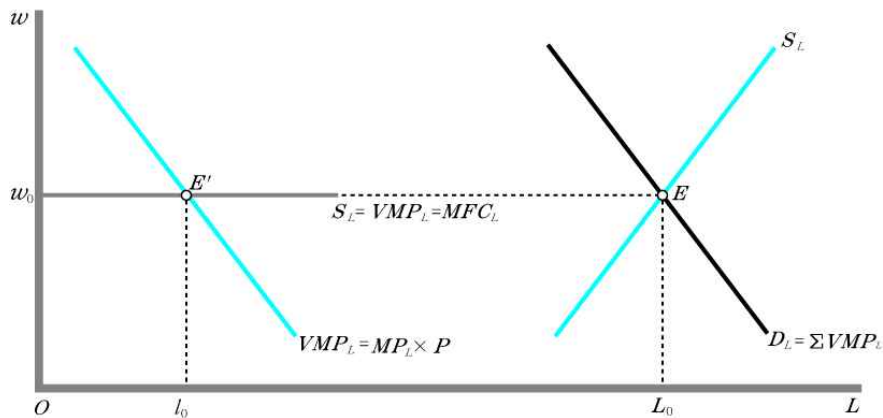
$$1) \text{ 임금}(w)=1,000 \text{ 일 때 } VMP_L = (MP_L \times P) = 50(-8L + 100) = 1,000 \Rightarrow 8L = 80 \therefore L = 10$$

$$2) \text{ 임금}(w)=3,000 \text{ 일 때 } VMP_L = (MP_L \times P) = 50(-8L + 100) = 3,000 \Rightarrow 8L = 40 \therefore L = 5$$

따라서 5만큼 감소

(참고)

■ 생산물시장과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이윤극대화(최적고용) 조건



➡ 개별기업

노동수요곡선 : $VMP_L = MP_L \times P$

노동공급곡선 : 가격수용자이므로 수평선인

$$w_0 = AFC_L = MFC_L$$

➡ 전체시장

노동수요곡선(D_L): 개별기업의 노동수요곡선 수평합

노동공급곡선(S_L) : 개별노동자의 노동공급곡선 수평합

시장의 형태와 관계없이 이윤극대화조건은

$$\text{한계수입생산물}(MRP_L) = \text{한계요소비용}(MFC_L)$$

①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이면 $MRP_L = VMP_L$ 이고

②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면 $w_0 = MFC_L$ 이므로 생산물시장과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이윤극대화 조건은

$$\text{요소가격}(w) = VMP_L = (MP_L \times P)$$

이는 생산물시장에서 완전경쟁인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요소가격과 한계생산물가치 (VMP_L)가 같아지는 수준까지 요소를 고용하는 것이다.

→ VMP_L 곡선이 단기에 있어서의 생산요소 수요곡선이 된다.

121. 노동시장과 임금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이론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가 위험선호자이기 때문에 고위험 직종의 임금이 높게 형성된다.
- ② 동등보수(equal pay)의 원칙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함을 의미한다.
- ③ 유보임금률(reservation wage rate)은 동일 업무에 대해서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④ 이중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 간의 이동 여부는 정부규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 ⑤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의 임금격차는 한계생산물 가치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정답 ⑤

(풀이)

- ① (X)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이론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가 위험기피자이기 때문에 고위험 직종의 임금이 높게 형성된다.
- ② (X) 동등보수(equal pay)의 원칙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함을 의미한다.
- ③ (X) 유보임금률(reservation wage rate)은 동일 업무에 대해서 취업을 거절하는 경우의 임금률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유보임금률의 결정에는 과거의 임금, 연령, 가족구성원의 소득, 자녀의 유무 등이 관련된다.

- ④ (X) 이중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 간의 이동 여부는 정부규제보다 노동시장의 구조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 ⑤ (O)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의 임금격차는 한계생산물 가치(생산성)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참고)

■ **보상적 임금격차 또는 보상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직업의 임금 외적인 불리한 측면을 상쇄하여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균등화 임금격차(Equalizing Wage Differentials)'라고도 한다. 보상적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의 안정성 여부(금전적 위험)**

어떤 직업의 고용이 불안정하여 실업할 가능성이 크다면,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해 줄 정도로 높은 임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② **작업의 쾌적함(비금전적 차이)**

어떤 직업의 작업내용이 다른 직업에 비해 위험이 따르고 작업환경 또는 열악하다면, 이 직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여 비금전적 불이익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③ **교육훈련 비용의 여부(교육훈련의 차이 혹은 교육훈련 기회의 차이)**

어떤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비용이 들어간다면, 이 비용은 이자를 붙여 임금으로 회수되어야 할 것이다.

④ **책임의 정도**

의사, 변호사, 보석 세공인 등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에 종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 종사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큰 책임으로 인해 높은 임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⑤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임금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장래가 불확실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122.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작게 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노동과 다른 생산요소 간의 대체탄력성이 커진다.
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용 비중이 커진다.
ㄷ. 노동투입으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신규 특허 적용에 따라 상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 ③

(풀이)

ㄱ. (X) 노동과 다른 생산요소 간의 대체탄력성이 커진다. ⇒ (참고) ㉗ 탄력적

ㄴ. (X)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용 비중이 커진다. ⇒ (참고) ㉘ 탄력적

ㄷ. (O) 노동투입으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신규 특허 적용에 따라 상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 (참고) ㉙ 비탄력적

(참고)

■ 요소수요곡선의 요소(노동)의 가격(임금)탄력도 결정요인

$$\text{요소의 가격(임금)탄력도} = \epsilon_w = \frac{\text{요소(노동) 수요량 변화율}}{\text{요소가격(임금) 변화율}} = - \frac{\Delta D_L / D_L}{\Delta w / w}$$

결정요인	탄력적	비탄력적
㉓ 대체생산요소	많다	적다
㉔ 생산물수요의 가격탄력성	탄력적	비탄력적
㉕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의 가격탄력성	탄력적	비탄력적
㉖ 측정기간	길다(장기)	짧다(단기)
㉗ 생산비 비중	크다	작다

123.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와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노동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전용수입에 해당한다.
- ② 노동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지급한 보수 전액이 경제적 지대이다.
- ③ 노동을 현재의 고용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수는 전용수입에 해당한다.
- ④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높은 노동은 다른 요소로 대체하기가 더욱 수월하다.
- ⑤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높은 노동의 경우 임금률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량이 쉽게 증가한다.

정답 ③

(풀이)

- ① (X)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노동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경제적 지대에 해당한다.
- ② (X) 노동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지급한 보수 전액이 전용수입이다.
- ③ (O) 노동을 현재의 고용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수는 전용수입에 해당한다.
- ④ (X)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높은 노동은 비탄력적이므로 다른 요소로 대체하기가 어려워하다.
- ⑤ (X)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높은 노동의 경우 비탄력적이므로 임금률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량이 쉽게 증가하지 않는다.

(참고)

■ 경제적지대와 전용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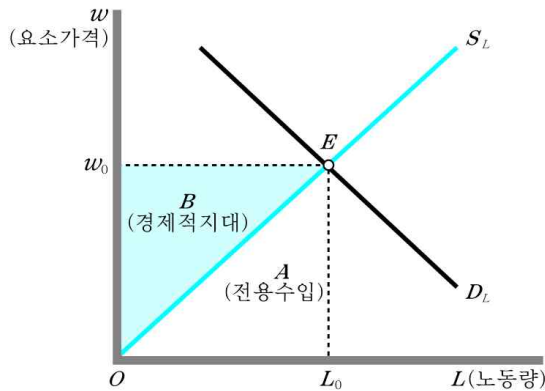
(1)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 이전수입)

전용수입이란 어떤 생산요소가 현재 고용되고 있는 곳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수를 받고 있을 때 이 생산요소를 현재의 고용상태에 붙들어 두기 위하여 최소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생산요소공급에 의한 기회비용의 의미이다.

(2) 경제적지대(economic rent)

경제적지대란 어떤 생산요소가 현재 고용되고 있는 곳에서 받는 일정한 금액의 보수 중 전용수입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하며 이는 생산요소가 얻은 소득 중에서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생산요소공급자의 잉여라 할 수 있다.

◆ 생산물시장의 공급자 잉여를 생산자잉여라 하면, 생산물요소시장의 공급자 잉여를 경제적지대라 한다.



- ❶ 그림에서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의 교점 E 에서 요소가격이 w_0 , 요소 고용량이 L_0 가 결정 되면 이 때 생산요소가 얻는 보수는 $\square OL_0Ew_0$
- ❷ 전용수입은 노동공급곡선의 아래부분인 $\triangle A$ 이고 경제적지대는 $\triangle B$ 이다.
- ❸ 경제적지대는 재화시장에서의 생산자잉여와 같다.

124.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❶ 구직단념자의 증가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률을 상승시킨다.
- ❷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실제 임금수준이 균형임금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❸ COVID-19 팬데믹 문제로 산업 활동이 둔화하여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에 해당한다.
- ❹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 증대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
- ❺ 해외 유아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경우 실업률이 하락한다.

정답 ④

(풀이)

- ❶ (X) 구직단념자의 증가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초래하여 실업률을 상승시킨다.
- ❷ (X)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실제 임금수준이 균형임금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❸ (X) COVID-19 팬데믹 문제로 산업 활동이 둔화하여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적 실업에 해당한다.
- ❹ (O)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 증대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
- ❺ (X) 해외 유아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변하지 않으므로 실업률이 변하지 않는다.

(참고)

■ 비자발적실업 (involuntary unemployment, 非自發的失業)

일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를 갖고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

종류	경기적 실업 (cyclical unemployment , 景氣的失業)	구조적 실업 (Structural unemployment , 構造的失業)
정의	▸ 경기침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량의 실업으로 케인즈적 실업이라 한다.	▸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잃거나 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기적 실업
대책	▸ 케인즈학파는 재량적인 재정·금융 정책을 주장한 반면 고전학파 계통은 재량적인 정책의 실시를 반대한다.	▸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분야의 직장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다.(인력정책)

◆ 구조적실업 중 기술혁신으로 경쟁력 잃어버려 발생된 실업을 **기술적실업**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125. 효율임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효율임금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과 동일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서로 다른 기업의 노동자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다른 경우는 효율임금이론으로 설명된다.
- ③ 효율임금이론은 노동자의 이동이 단기적으로 활발하여 균형임금이 효율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 ④ 효율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효과로 인하여 노동의 태만이 증가한다.
- ⑤ 효율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만 남는 역선택 문제가 야기된다.

정답 ②

(풀이)

- ① (X) 효율임금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으므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 ② (O)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서로 다른 기업의 노동자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다른 경우는 효율임금이론으로 설명된다.
- ③ (X) 효율성임금이란 실질임금 1단위당 근로의욕이 최대가 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 ④ (X) 효율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의 근무태만을 방지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 ⑤ (X) 효율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역선택 문제가 해결된다.

(참고)

■ 효율성임금이론(실질임금 경직성)

(1) 가정

- ① 실질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좌우한다.
- ② 효율성임금이란 실질임금 1단위당 근로의욕이 최대가 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2) 균형실질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효율성임금이 지속되는 미시적 근거

① 노동이직모형

높은 실질임금이 이직률을 낮춘다.

② 태업(도덕적 해이)방지모형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의 근무태만을 방지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역선택 모형

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효율성임금이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④ 영양상태 향상모형 (산업화 초기에 해당함)

실질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영양상태를 향상시키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모형

(3) 효율성임금이론의 의미

- ①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인 효율성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시장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 ② 결국 효율성임금은 균형실질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경직적으로** 유지된다.

----- 이 상 -----